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사도를 뽑으셨다고 하며, 그 명단이 마르코 복음서에 실려 있다. 12사도의 역할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제자'(마테테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니는 '사도'(아포스톨로스)이다. 우리가 같은 이들을 두고 '12제자'라고도 부르고 '12사도'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라삌의 제자들과 많이 달랐는데, 라삌는 제자들과 함께 유랑하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제자는 출가出家제자다. 그러나 출가제자와 반대로 제자가 된 후에도 자신들이 살던 곳에 계속 살았던 재가在家제자도 있었다. 재가제도자들의 이름을 꼽아보면, 최고 의회(산헤드린)의 의원이며 후에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까지 양보한 아리마태아 요셉(마르 15,42-47), 예수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받은 바리사이파 유력인사인 니코데모(요한 3,1-21), 세관장 자캐오(루카 19,1-10),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로도 불린 라자로 등이 있다. (요한 11-42)

12사도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시몬 베드로다. 그는 가장 먼저 제자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고(마르 1,16-17), 12제자의 대표자 구실을 했으며(마르 8,27-30;16,7), 예수님의 빈무덤을 처음 확인했고(요한20,1-10),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 예루살렘 모교회회를 정착시킨 장본인이었다(사도 1-12장). 베드로는 명실공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다음으로 제배대오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과 친숙했던 제자들이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두번째로 발탁되었으며, 베드로와 함께 종종 예수님과 동행한다(마르1,29;9,2;10,35-40;14,33). 말하자면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웠던 '3인의 제자'에 포함된다. 그 외에 주목을 끄는 인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토마스 (요한 20,24-29), 열혈당원 시몬(혹은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배신자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다. 나머지 제자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

12사도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부와세리 (마르 2,14=마태9,9에 나오는 세리 '마태오') 천한 직업이었고 열혈당원은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당파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와 반로마 세력인 열혈당원이 12제자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2'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상징하는 숫자였기 때문이다. 즉, 12제자를 통해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모으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12제자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십자가도 지지 않았을 뿐더러 제 목숨을 건지려 전원 줄행랑을 놓았다. 그러나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은 복음 전도사로 나선다. 인생의 일대 전기가 없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무엇인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마르코는 그 일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한다. 사흘 전에 돌아가신 분이, 분명히 죽음을 확인하고 안장까지 했던 분이 다시 살아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면 누구라도 '앞으로는 전적으로 이분을 위해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지 않겠는가" 부활 사건이 갖는 박력이다.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났고(출가제자), 때로는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파견되었다. 기원후 53-38년 경에 쓰인 바오로의 코린토 서간을 염두에 둘 때 '12사도' 체제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에도 1세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다. (1코린 15,5-8)